마가복음에는 영(πνεῦμα, spirit)이란 단어가 총 23번 나오는데, 이 중 성령으로 표기된 곳은 단 4군데 뿐이다(1:8; 3:29; 12:36; 13:11). 그 외 예수의 마음, 영을 뜻하는 곳이 3번(2:8; 8:12; 14:38), 그리고 14번은 더러운 영 혹은 말 못하는 영을 가리킨다(1:23, 26, 27; 3:11, 30; 5:2, 8, 13; 6:7; 7:25; 9:17, 20, 25*2). 나머지 2번은 예수가 세례 받은 후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는 과정에 나오는데, 아무런 수식어나 술어 없이 홀로 쓰인다(1:10, 12). 여기에 쓰인 단어는 단순히 영(πνεῦμα)인데 분명 예수의 마음, 영과는 구별된다. 예수의 마음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영이기 때문이다. 이를 한글성경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마가복음에는 마치 성령이 6번 나오는 결과가 되지만, 실제로는 4번만 나온다.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무슨 대단한 차이라도 있나?

먼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 삼위일체(三位一體)와 같은 교리를 전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은—그리고 성서는—그런 교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쓰인 문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의 반대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말이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반대/상대 개념과 함께 비교 분석할 때, 차이를 통해 그 뜻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영으로 쓰일 때 그 순수한 의미와 용도를 다른 용도, 곧 성령이나 더러운 영과 구분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 마가복음에는 예수와 하느님을 동일시하는 사상이 전무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성령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느님을 이루는 세가지 위격(페르소나) 중 삼위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성신(聖神)이라고도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대중적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성령을 '하느님'과 동격으로 취급하는데, '하느님' 이해가 인간의 영역 밖이고 또 그 근거가 불분명한 만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령 이해 또한 각양각색이다. 삼위일체(trinity)에서는 성부(Holy Father), 성자(Holy Son), 성령(Holy Spirit)을 말하지만 이런 말 그대로는 성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마 28:19 의 아버지(Father), 아들(Son), 성령(Holy Spirit)이나 고후 13:14 의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하느님(God), 성령(Holy Spirit)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삼위(三位)를 일컫는 언어에 통일이 없다. 그냥 Father, Son, Spirit 해야 비교 대상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하다(holy)는 형용사는 그 자체로는 존재의미를 잃고, 명사와 함께 쓰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 성령(holy spirit)이 아니라 영(πνεῦμα, spirit)이 비교 대상이고 마가복음의 성령 이해의 근본이자 출발점이다.

둘째, 성령—거룩한 영—을 말할 때, 그 상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거룩하지 못한 영이 되겠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더러운 영"(unclean spirit)이라 불렀다. 우리말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마치 영과 귀신이 비교 대상인듯한 인상을 남긴다. 성령을 또한 성신(聖神)이라고 하여 귀신 신(神)자를 써서 표현하듯,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란 단순히 더러운 영과 똑같은 말이다. 귀신이 아니라 '더러움'이 이해와 비교의 대상이다. 더러운 귀신과 거룩한 귀신,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은 모두 같은 용법이고 이래야 번역과 해석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비교 대상은 영과 귀신이 아니고, 다만 그 (하나의) 영이 거룩한가 더러운가를 묻고 있다.

셋째, 영은 무엇인가? 본래 히브리 사상에는 천사/악마와 같은 영적 존재, 부활, 심판 개념 등이 없었는데, 후기 유대교로 오면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영향으로, 악마를 초자연적 존재로 그리기 시작했다. 신약성서의 또 다른 배경이 되는 그리스-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에는, 그리고 그리스어에는, 악마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일리, 『하느님의 강』, 149). 비단 "그리스인들만이 악마의 개념을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조로아스터교를 제외하곤, 우리가 살펴본 어느 문화도 악마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152). 그렇다면 영이란 개념도 없었을까?

히브리어로 영에 해당하는 단어는 루아흐(רוּחַ)인데, 영(spirit, mind) 또는 바람, 호흡(wind, breath)으로 번역된다. 바람이 당시 우주관에서 신의 숨결(호흡)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영이 태초

부터 있었고(창 1:2), 그 영이 하느님의 숨결(바람)을 통해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또 다른 창조 이야기의 배경이다(창 2:7; 욥 33:4). 이 영(혼)은 경우에 따라 하느님이 거두어갈 수도 있지만(창 6:3; 욥 33:14-15), 그 영을 설명하기란 용이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 개념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TDOT 13:365-402). 재미있는 사실은 영이 히브리어에서는 여성형으로, 헬라어에서는 중성형으로(πνεῦμα), 라틴어에서는 남성형(Spiritus)으로 표기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천사/악마와 같은 영적 존재는 이런 영이 의인화, 인격화된 존재를 말한다.

월터 윙크는 그의 책,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에서 이런 인격화된 존재로서의 영은 내부의 영적인 실재가 외부에—"우주의 스크린에"— 투사된 것으로 본다(33).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힘은 실제 제도에서 발산되는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투사의 과정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34) 여기서 영적인 힘, "사탄" 혹은 "귀신"은 단지 상징/투영된 것일 뿐 실제로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경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경험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를 끌어내려 우리 가운데 있는 실제적인 영적 힘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서문에서 언급한 해석학적 삼각형을 도입해 보면, 여기서 사탄이나 귀신은 **기록**에 해당하고, 그 이면에 있는 실제적이고도 무서운 것이 **사건/경험**이 되며, 이와 더불어 영적 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기록, 사건을 가능케 한 **의도**기 때문이다.

이를 또 앞의 장 "죄와 회개"라는 주제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나의 잘못이 바깥 우주 어딘가에 내 의지와 상관 없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인식이다. 귀신이니, 악령이니 초자연적 존재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내 잘못/죄를 떠 넘기면(투사하면), 결코 내 잘못/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맞부딛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죄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내 죄가 나와 관계 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더러운 영(혼)'이 의인화, 인격화, 상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은 영혼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또 외부로 발산하는 힘을 (영)혼이라 할 때, 그 원천에 해당하는 힘이 영이다. 그리고 원천이 되는 영은 하나 뿐이니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 우리의 관심사다.) 근본적으로 다른 영을 가정하면, 이원론적 사고로 흐르게 되는데, 조로아스터교를 제외하곤 어느 문화와 사상 속에도 없었던 생각이다. 그리고 사실 조로아스터 사상에도 종말에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이기게 되어 있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두 개의 신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그런 두 영/(귀)신이 존재한다면 기차 길의 양쪽 선로(線路)처럼 영원히 만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싸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에서 성령이란 (하나인) 영의 거룩한 모습이고, 더러운 영이란 (하나인) 영의 더러운 모습이다. 영이 본래 거룩하다거나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이 내 안에 그리고 인간의 조직 안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영혼인데 그 영혼이 거룩하거나 더럽게 활동한다. 그리고 그것을 의인화하여 외부로 투사한 것이 천사니 귀신이니 하는 영적 존재다. 윙크의 말을 빌면, 악마란 "거룩한 소명(召命)을 배신해버린 제도와 구조의 실제적 영성"이다(36).

예수와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은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말했다(막 1:8). 하지만 성경에 예수가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예수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제자가 세례를 준 것이라는 변명은 있다(요 4:2). 그러면,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한 뜻은 무엇일까?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 마디로 영에 이끌리는 삶, 신들린 삶으로 당시에 새로운 학설이다.

예수의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와 사뭇 다르다. 물세례는 죄를 씻거나(막 1:4), 혹은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세례란 죄에 대해 죽고 하느님께 대하여 사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롬 6:1-11).

예수의 성령세례는 이렇듯 옛 것이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등장으로 우리들 삶이 단숨에 변화함을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듯 에고(ego)는 멸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관리 대상일 뿐이다. 예수는 하느님의 능력, 현존을 느끼고 자신의 갈 길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영이 '하늘로부터' 예수께로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일어난 일이다(막 1:10-13).

예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옛 선인들 언어에서 하늘은 하느님 자리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누가 보나? 예수만 본다. 이 표현과 더불어 생각할 것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막 1:11). 이인칭 직접화법으로 예수에게 하는 말이다. 마가복음 9 장 변화산 체험에서는 이를 삼인칭으로 바꾼다. "이는 내 아들이다"(9:7).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로 전환된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늘이 열리는 일은 없다.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신분열(schizophrenia) 증세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천지개벽(天地開闢)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말로,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열리는 하늘은 바깥 세상에는 없다. 내 안에만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느님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가 있다. 곧 자신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 본다는 말이다. Who am I?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참나(진아, 眞我)를 찾는 노력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내면을 깊숙이 보려면, 그 사람 자신 밖에는 없다. 예수의 비전을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는 있어도, 비둘기가 내리듯 볼 수는 없다. 본인 스스로만 그것도 환상으로 볼 뿐이다. 아니 본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이끌어 내는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존재의 깊은 내면 속에서 만난 하느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다. 예수의 삶을 세상 한 가운데로 이끌어 낸다. 거기서 예수는 훈련 과정을 거쳐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이겨낸다(막 1:13; 마 4:11; 눅 4:13). 마커스 보그가 말한 신(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

예수와 가르침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한다(διδαχή, διδάσκω). 마가복음에만 "가르침"이라는 말이 총 22번 나오는데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많이 쓰인다. 참고로 마태복음에 16번, 누가복음에 16번, 요한복음에 13번 나온다. 가르침은 예수의 삶의 일부분으로, 습관화된 생활을 보여준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곤 했다"(막 1:21, ἐδίδασκεν), 사람들이 "놀라곤 했다"(막 1:22, ἐξεπλήσσοντο) 등 미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예수의 규칙적이고 습관화된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가르침과 연관해 마가복음은 예수의 호칭을 "선생" (4:38; 5:35; 9:17, 38; 10:17, 20, 35; 12:14, 19, 32; 13:1; 14:14); 랍비(9:5; 10:51; 11:21; 14:45) 등으로 부르며, "주님"이란 단어는 오직 한 번 등장한다(7:28).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마태(34); 마가(1); 누가(27); 요한(33). 마가복음의 특이한 점이다.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반면, 주님이란 말은 예수 주위의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다. 예수는 다만 선생으로 불린다. 이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만 예수를 랍비/선생으로 부르고(마 26:25, 49)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다(마 26:22).

그럼, 예수의 가르침의 출처는 어딜까? 막 1:21-28은 예수의 첫 번째 행적에 관한 이야기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더러운 영'을 내쫓는 장면이다. 그 때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한 말이 '권세에 따른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외침이다. 우리말 성경은 "권세 있는 새 교훈"(개역한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표준새번역), "권위 있는 새 교훈"(공동번역)" 등으로 해석하며, 영어성경은

“new teaching with authority(NIV, NRSV), 혹은 “with authority he commands”(KJV, RSV) 등으로 이해한다. 영어번역본에서 차이점은 권위가 가르침에 붙는지 명령에 붙는지 차이일 뿐, 이들 모든 해석은 권위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남에게는 없는 그러나 예수에만 있는 그 무엇—그래서 권위처럼 느껴진다. 예외적이고 배타적인 이해다.

그런데 이를 다시 해석해 보면, “권위에 따른 새로운 가르침(new teaching according to authority)”이라는 말로 예수와는 별도로 다른 권위를 상정해 놓고 있다. 예수는 단지 그 권위에 의거해서 말하고 있을 뿐, 다만 권위에 순종할 뿐이다. 헬라어 전치사 카타(κατά)는 제 4격과 함께 쓰일 때, “…에 따라(according to)”라는 의미를 가지며, “권세를 따라”(고후 13:10), “전통을 따라”(막 7:5)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권위’와 ‘전통’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서열상 그 권위/전통과는 별개다. 막 1:22의 “권위를 가진(having authority)” 자란 표현 역시 서기관들과 다름을 말하고 있다. 서기관들은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권위를 모르는 사람처럼, 곧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처럼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고발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말해, 영(πνεῦμα, spirit)이다. 하늘로부터 내린 영—예수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하느님의 영—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이 예수를 광야에 보내 훈련시키고, 그 후 예수는 그 영의 힘(권위)에 따라 산다. 예수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들린 삶, 영에 이끌린 삶을 산다. 이런 예수의 영혼이 거룩한 영 곧 성령이다. 영이 제대로 쓰인 모습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더러운 영이고, 하느님의 뜻보다는 제뜻대로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영의 더럽혀짐, 곧 “더러운 영”의 모습이다. 우리가 앞으로 자주 언급할 지배이데올로기, 곧 지배체제의 영성이다. 이것이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어 불릴 때 귀신, 악령으로 이해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말은 이런 의인화된 영혼, 생각을 보여준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그 사람에게서 나오라"(1:25). 누구를 꾸짖었나? 여기서 헬라어 “그”는 남성(사람), 중성(더러운 영) 모두 될 수 있지만, 25절 후반부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에서 볼 수 있듯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과 그를 구분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인칭대명사 그는 "그 영," 곧 더러운 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단수지만,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1:24)”에서 보듯 복수형이 쓰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영혼)이 있다. 권세(영)에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 장(章)에서 성령과 더러운 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흔히 말하는 ‘악령’이란 표현을 들어 다시 정리하면, 악령이란 타락한 영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자리한 실재(實在)요 실존(實存)이다. 이를 본래부터 하느님과 분리된, 대립적인 존재로 이해하면(근본주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의 존재가 된다. 마찬가지로 악령의 존재를 부인함도(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러운 영(귀신) 혹은 악령을 쫓아낸다 함은 내게 있는 지배체제의 영을 축출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학 하기의 출발이다. 지배체제란 권위(영)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는 집단이고(10:42),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치관)이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11:27-33)? 예수의 권세는 분명 세상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해 보기

1. 나는 성령을 가지고 (혹은 모시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나?
2. 비기독교들도 성령을 가지고 (혹은 모시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나?